



6·4 지방선거 확대경

‘호남 소외’ 성난 민심 탓…거론 인사들도 ‘손사래’

민주·새정치연합에 줄서는 후보들과는 대조적

새누리 시당 “후보 경선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

새누리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달리 오는 6·4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 기준’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이 전통적 민주당 뒷받침이었던 탓에 새누리당(전신 한나라·신한국당 등 포함)이 광역단체장 후보를 찾는데 애를 먹긴 했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주 시장과 전남도지사 선거에 입지자들이 8명 씩이나 몰리면서 입지자들 간 경선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등 오랜만에 선거다운 선거전이 펼쳐졌다.

이 때문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들이 각각 두자릿수 지지를 기록하며 선전을 했다.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가 14.22%를, 김 대식 전남지사 후보가 13.3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친이’(親李)계 인사들이었다.

그러나 4년 뒤인 지금, 또 다시 광역단체장 ‘후보 기준’ 현상이 빚어지면서 6·4 지방선거에 ‘빨간 불’이 켜졌다.

현재 새누리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광역단체장 후보와 각 자치단체장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6·4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후보는 중앙당과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는 시·도당 후보선정위원회 등에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중앙당에서 시·도당의 추천을 요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인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당은 최근 지명도와 경륜이 있는 거물급 인사 2명을 접촉해 광주시장 후보를 권유했지만,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중앙당과 협의를 통해 ‘외부 인사 수혈’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년 전과 달리, 광주·전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기준현상이 벌어진 데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한 자리수 지지를 밖에 올리지 못한데다 현 정부 들어 ‘호남 소외론’에 대한 성

난 호남 민심 탓에 선뜻 후보들이 나서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즉 ‘친이’계 후보들이 대거 나서면서 중앙당의 힘을 받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직 ‘친이’계 후보들이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후보 기준’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누리당 안팎에선 ‘친박’계인 이정현 청와대 공보수석 출신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아직 광역단체장 후보는 없지만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인사들은 상당수 있어 조만간 지방선거 대책위원회와 후보선정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복수 추천을 한 뒤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부 1년’ 민생파탄 25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지역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주변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3월 4일 예정된 ‘박지원의 무한도전’ 출판기념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당이 어제 밤의 한류실천법안을 높이 평가하고 당의 중진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책을 공짜로 나눠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 봉투로 받으면 당 혁신 안에 위배된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념회를 취소했을 뿐 선거를 의식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담주는 출판기념회 안한다’

유력 후보들 취소 잇따라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시한 혁신안으로는 출판기념회 투명화를 위해 출판기념회 비용과 수익을 선관위에 신고하게 돼 있다”며 “수익공개 차원을 뛰어넘어 아예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달 중 열려고 계획했던 출판기념회를 취소했다.

전남도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는 장민체 현

기업인, 사업가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하려던 출판기념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도 “출판기념회가 공무원과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시장 선거에 나선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이사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 파시와 정치자금 모금 칭구로 번질 출판기념회를 탑승하지 않고자 ‘동원·모금·파시’는 없애고, ‘소통·공감·재미’가 넘치는 SNS 출판기념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4년 제12기)

- 개강일시 : 2014. 3. 3.(월) 초급야간 18:30
중급야간 18: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4. 2. 3(월) ~ 2014. 2. 28(금)
- 수업기간 : 2014. 3. 3(월) ~ 2014. 6. 20(금)(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초급 야간 : 30명(민간자격)
중급 야간 : 30명(국가공인자격-민간자격도 동시취득)

* 기초가 부족하면 총급반에 지원하되, 수료시 중급반에 자동 진급하고

총급반 수료 정도의 기초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중급반에 지원 할 수 있음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초급 : 중급 모두/18:30 ~ 21:30(3시간 수업)

• 수료 후 특전

- 초급 + 중급 연수과정 수료시 /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초급 수료시 / 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 협의회 시행

한문지도사 시험 응시

- 중급 수료시 / 국가공인 2급 이상 한문지도사 시험응시

/ 국가 공인 기관 시행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노인 복지 및 각급 사회복지기관 강사 취업 가능

- 초·중등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한문강사 취업 가능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530-3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0-8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에전주·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c.go.kr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18기) 광주교육대학교(9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4. 3. 7.(금) 09:10(특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3. 8.(토) 09:10(중급반)

모집기간 2014. 1. 23.(목)~3. 8.(토)

수업기간 2014. 3. 7.(금)~2014. 8. 16.(토)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수강료 ₩360,000 (예금주: 광주교대)
광주은행: 145-107-307803

수료후 특전 1.2단계수료장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전통학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 교육강사 취업 가능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국립~사법) 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56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e.ac.kr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 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 표 전 화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김효석, 전남지사 불출마

“백의종군 할 것”…새정치연합, 전윤철 등 영입 검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연합에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김효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사실상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공동위원장은 2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처음부터 그런(출마) 권리를 여러 차례 안 의원이 했지만, 저는 새정치에 백의종군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참여하기 전부터 출마 얘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공동위원장은 “이번 6·4 지방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선출직에 도전하기 어려운 입장이나는 질문에는 “저는 다른 많은 분들을 추천하고 있고 새로운 인물을 더 찾아서 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당분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김 공동위원장의 고사에 따라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등 장관급 2명을 전남지사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현실적으로 민주당도 1만명 이상이 탈당을 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국민이 민주당이 달라지는 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결국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한 평가는에서는 “국민이 많은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 국민을 통합하는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훨씬 더 갈라놓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김 공동위원장의 고사에 따라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등 장관급 2명을 전남지사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시도교육감

양형일 “체벌·학폭 원천차단, 안전한 학교 만들어야”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8일 “체벌이나 학교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련회나 체험활동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학교内外의 위험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학 신입생 환영회 도중 대규모 인명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 체벌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뇌사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리조트 붕괴 사고의 원인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있고, 뇌사자의 경우는 아직도 체벌이 극복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봉근, 광주·전남 첫 ‘시민교육감 펀드’ 모집



당 1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자율은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수준인 연리 2.65%를 적용해 상환받는다. 투자자는 윤봉근 홈페이지(www.edubong.kr)에 신청하면 된다.

/윤봉근 시민교육감 펀드 기자 jwpark@kwangju.co.kr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헛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